

##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Perceptions of and willingness for marriage amo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 〈목 차〉

I. 서론	IV.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and willingness for marriage amo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data came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of the Survey Research Center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e sample data set included 292 men and women aged 20 to 3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ender, satisfaction with one's household economic conditions, and significantly affect the individuals' perceptions of marri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men's education level, value of family succession, value of gender roles, and value of parents' rol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their perceptions of marriage. In the case of the women's perceptions of marriage, the significant factors are their household economic conditions, value of family succession, value of gender roles, and value of childbirth. Second, the willingness for marriage among unmarried people is decided by age, education level, whether one has an income or not, satisfaction with one's household economic conditions, and value of one's childbirth.

Overall, gender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all the other variables. However, men's and women's values of gender roles and family succession, respectively, both significantly affect their perceptions of marriage but show opposite coefficient directions. Another finding shows that unmarried people who are willing to marry tend not to have children. This implies that they do not perceive the decision on having a child as a necessary factor behind marriage decisions.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hsh@kmu.ac.kr)

**Key Words**: 결혼제도 인식(the perceptions of marriage), 결혼의향(willingness for marriage), 가계계승 가치관(value of family succession), 성역할 가치관(value of gender role), 부모역할 가치관(value of parents' role), 자녀가치관(value of childbirth)

## I. 서론

결혼은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가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와 지역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 태도의 변화를 거듭해왔다. 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계를 계승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단위로서 남녀가 성인이 되면 따라야 하는 통과의례였다. 또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결혼 제도가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기보다 선택으로 고려되기도 한다(김예리, 2009). 즉,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나 의무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는 일종의 삶의 양식으로, 다양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과 태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조지영, 2011).

그러나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결혼 자체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의미 부여나 결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최소영·장진경, 2016) 이해되기도 한다. 즉,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결혼인식의 변화와 별개로 개인의 결혼의향이 다를 수 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 따라 전통과 현대적 특징 사이에서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주요 기재로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 등에 주목하고 있다(김혜영·김상돈·박선애, 2012).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은 2018년 43.5%로, 남성의 52.8%에 비해 9.3%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는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1998년에 67.9%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2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한겨레신문, 2019).

결혼인식 및 결혼의향은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가족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미혼인구와 만혼이 급속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결혼의 필요성 인식과 결혼의향 또는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삼식, 2005; 박경숙·김영애·김현숙, 2005; 이삼식, 2006; 김정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혼남녀의 결혼인식과 의향은 연령, 성별, 경제적 자원, 가치관 등에 의해 형성된다.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거나 결혼의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결혼연령규범의 약화와 만혼화의 경향으로 결혼인식과 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개인화, 복합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윤주(2017)는 통계청의 1998-2014년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를 연령, 시기, 코호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결혼의 당위성에 동조하는 태도는 점차 감소하였고, 30대 중후반 연령대가 전체에 비해 결혼 당위성에 동조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약하게 나타났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복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많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남성에 비해 연령과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적령기에 대한 연령기대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족학에서는 가족주의 및 가족가치관의 맥락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혼, 저출산현상을 논의해왔다(진미정·정혜은, 2010; 김혜영 외, 2012; 진미정·한준·노신애, 2019; 채민진, 2019). 가족가치는 가족의 가풍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고유한 인식이나 가족생활과 연관된 철학적 기초에 이르기까지를 통칭하는 것으로(김혜영 외, 2012). 김경신(2010), 최효미(2017)는 가족가치관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분류했으며, 「사회통계조사」에서는 가족인식을 결혼, 이혼, 재혼, 입양에 대한 견해로,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결혼, 출산, 이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성역할 인식과 부부관계, 동거 및 외도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급격한 변화과정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는 변화가 압축적으로 나타나는(장경섭, 2009) 한편 다른 영역에서는 가족중심성이나 가족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김혜영 외, 2012) 혼재 양상 속에서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 결혼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이 결혼 선택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할 확률이 높았으며(Sassler & Schoen, 1999),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삼식, 2005). 최세은(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긍정적 결혼가치관은 이른 초혼 연령으로 이어졌지만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자녀와의 유대감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 더 높은 결혼의향을 가질 수 있는

(진미정·정혜은, 2010) 반면 미혼여성이 여전히 육아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는 양육부담은 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으로 성 평등 인식, 가족 내 역할분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별은 가치관, 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이어져 남녀의 결혼인식과 결혼의향의 차이로 나타난다. Becker(1991)의 성역할 전문화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장노동 전문화에 적합한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Oppenheimer(1997)는 여성에게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이 중요시되면서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매력을 가지며 우위를 점유하여 결혼할 가능성도 높다(김정석, 2006에서 재인용)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윤자영(2012)은 여성의 취업 상태는 결혼 가능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나, 정규직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결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교육수준, 취업상태,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결혼의향과 밀접하게 관련되나 여성의 결혼의향은 사회구조적 장벽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미혼 남녀에게 취업과 경력 쌓기가 우선되는 경향은 결혼 결정을 저해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선강과 어성연(2013)은 30대 미혼남녀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대체로 중요한 영향요인이나 그 양상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미혼여성의 개인근로 소득이 상에 속하는 집단이 중·하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으며, 미혼남성들은 비취업자일 때, 소득이 없을 때 결혼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다. 남성에게는 취업과 소득이 결혼의 전제로 작용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여부는 결혼의향과 무관하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을 지연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게 결혼은 취업 및

경력 개발과 시간, 노력 등의 인적자원을 경쟁적으로 배분하는 선택과 결정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인식의 차이, 그리고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결혼 연기나 비혼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의 초점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의 인적 자원과 취업,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태도를 비롯한 가치관 요인이 결혼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그 중에서도 성별은 연령, 성역할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 취업 및 소득의 효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녀의 결혼인식 및 의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생활에서 남녀의 차이는 의식정향에서 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체계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유지하는 특별한 사회구조적 기제로 작동되어 온 한편 여성이 결혼보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에는 가족우선성 의식의 변화, 역할 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이 주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결혼제도 인식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사회 전반에 흐르는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회적 조류 속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독자적인 의지와 의사결정을 반영한 보다 개인화된 결정이 결혼의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의 측면과 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사결정인 결혼의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결혼행태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과 의사결정에 대한 차이를 조명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과 결혼을 앞둔 미혼자들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비혼 현상과 관련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의향

전통적인 시각에서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첫 단계이며, 평생 동안 한 번만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후에는 그 틀을 깨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결혼에서 다양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가족의 안정과 유지가 우선되기 보다는 개인의 존재와 행복 추구가 존중되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 결혼을 유지하지 않는 이혼 결정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지고, 결혼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해 나가는 생활방식까지 결혼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변수정 외, 2017).

이처럼 결혼형태가 다양화되는 배경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인식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선행연구(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김중백, 2013; 고선강·어성연, 2013; 한영선, 2015; 박주희, 2017; 김은정, 2018, 채민진, 2019)에서는 결혼 인식을 결혼의향, 결혼의 필요성, 결혼으로 인한 편익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변수정 외(2017)가 통계청의 사회조사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결혼 인식 중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는 10년간 27.5%에서 42.9%로 크게 상승한 반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여부나 법적 혼인이 아닌 동거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으로 찬성하기도 하지만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제도와 규범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층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결혼과 관련된 인식에서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별개로 인식하고 공존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측정되어 왔다. 하나는 결혼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의 필요성 등으로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의향으로 측정하는(김정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김중백, 2013; 고선강·어성연, 2013, 한영신, 2015; 박주희, 2017) 것이다. 첫째 측정방식으로 최효미(2017)는 결혼 인식을 결혼의 의미, 전통적 결혼 문화,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개방적 성관계, 1인 가구에 대한 태도의 6가지 하위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최소영과 장진경(2016)은 결혼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개인이 결혼 선택과 배우자 선택에 있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으로 정의, 측정하였다. 채민진(2019)은 결혼 인식을 사회 전반에서 수용되는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결혼이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측정하였다.

미혼 남녀 사이에서 결혼을 위한 다양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과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과거와 같이 사회적 규범 또는 가족과 가문의 문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여준다(조지영, 2011; 하보란, 2012). 즉, 미혼남녀에게 결혼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족문화와 별개로 자신이 선택할 문제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의향을 결혼 인식과 분리하여 접근해야할 이유이다. 결혼의향은 결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결혼에 관한 선택적 기회의 의미로, 또는 결혼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미로 보고 있다(Stein, 1981, 박주희, 2017에서 재인용; 홍은영, 2011). 즉, 결혼의향이란 일정 연령까지 선택의 기회를 내포하지만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 가능성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혼의향을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 또는 결정할 의사'로 정의하였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해 경제적 자원 측면에서 접근한 Becker(1991)의 성역할 전문화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

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남성이 시장노동을,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문화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따라서 시장노동 전문화에 적합한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지만 여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한 기대 이익이 적기 때문에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Oppenheimer(1988, 채민진, 2019에서 재인용)는 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되면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편익이 줄어들지 않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미래의 경제전망이 밝은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여 결혼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자원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오지혜와 임정재(2016)의 연구는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 상태인 경우 결혼 비율이 높았지만 미취업 상태인 경우 결혼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여성의 교육수준이 취업, 소득으로 이어질 때 결혼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했다. 그러므로 교육수준, 취업, 소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서 성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역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미혼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해왔다(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박주희, 2017). 김중백(2013)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차이가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변수, 결혼가치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치관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40% 높았는데, 이처럼 현저한 결혼의향의 차이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채민진(2019)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므로 결혼의향은 성별에 따라 개인 및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 가치관 등 여러 측면과 관련 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결혼의향의 영향

### 요인

#### 1) 개인적 특성

##### (1) 성별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통적인 결혼 생활 풍습과 가부장적 사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에 남녀 간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미혼남성은 여전히 미혼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사 담당과 같은 전통적인 부부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미혼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김예리, 2009).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과거의 사회적 관습 및 규범을 따르고 결혼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최소영·장진경, 2016). 김혜영과 선보영(2011)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혼화 경향과 독신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의 효용가치가 갖는 성별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 (2) 연령

최근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에 대한 규범 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연령은 결혼인식 및 결혼의향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연령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나 그 정도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았다. 이는 젊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여성들에게 더 크며,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중백(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 뿐 아니라 연령과 성별 간 상호작용항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설명변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차이는 20-24세 집단에 비해 30-34세의 집단에서 더욱 컸다. 고선강과 어성연(2013)의 연구에서도 30대 미혼 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다. 이에 비해 한

영선(2015)의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점차 감소하는데, 30대 후반부터 40대로 높은 집단이 결혼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혼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결혼의향의 관련성은 연구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다. 반면 일부 연구들(이수진, 2005; 김정석, 2006; 서지희, 2009)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결혼의 진입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오지혜와 임정재(2016)에 따르면 전문대졸 여성의 결혼비율이 고졸 여성에 비해 훨씬 낮았고 대학, 대학원 졸업 이상 취업여성들의 결혼비율이 높았지만 미취업 여성의 결혼비율은 낮아졌다.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 고졸이하 집단과 비교할 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이, 즉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기피보다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교육수준은 취업상태와 지위, 소득유무 등과 연관되면서 결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혼여부

결혼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여부와 관련성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결혼여부가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정하면 첫째, 결혼여부에 따라 결혼제도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즉, 기혼 남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게 된 반면 미혼자는 결혼제도에 대한 뚜렷하지 않거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 30대의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해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 결혼제도를 경험하고 자신의 태도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 (5) 가족관계만족도

이혼을 경험한 가족원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Shostak, 1987),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을 경험한 사례는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믿음과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정석, 2006). 김중백(2013)은 부모의 결혼상태와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간 관계 등을 결혼의향과 밀접한 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김정석(2006)의 연구 결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고선강과 어성연(2013)은 미혼남녀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 등을 분석했을 때 미혼남성은 이혼을 경험한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았다. 이를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교환론의 맥락(Ritzer, 2006)을 고선강·어성연, 2013에서 재인용)에서 형제자매, 친구 등 주변인의 결혼 결정과 결혼생활의 자극이 주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2) 경제적 자원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결혼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획득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야만 결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Hewitt and Baxter, 2012를 김중백, 20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고용율이 낮으며, 결혼에 필요한 자본 축적에 곤란을 겪은 결과 초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유홍준·현성민,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에는 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포함되었으므로 경제적 자원을 취업여부 보다는 근로소득유무로 측정하였다.

##### (1) 근로소득유무

최효미(2017)의 연구 결과 소득 200만원 이상인 청년 집단이 10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고선강과 어성연(2013)은 근로소득이 상에 속하는 30대 미혼여성들은 중·하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은 반면 미혼남성 중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집단이 중·하 집단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없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므로 미혼남성에게는 미취업과 같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 미혼여성에게는 고소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그 바탕이 되는 교육수준, 취업여부와 연관되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김정석(2006)은 20-44세 미혼남성의 취업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홍준과 현성민(2010)도 20세-44세 미혼 남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학력과 직업지위도 결혼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고학력, 취업, 높은 직업지위는 결혼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성별이 경제적 자원과 결부되면서 결혼의향 및 가능성에 달리 작용하는 구조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가계경제만족도

근로소득유무가 개인의 경제적 자원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라면 가계경제만족도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부모 및 가계구성원의 소득 및 자산에 바탕을 둔 주관적 평가의 결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를 고려할 때 미혼남녀의 결혼인식 및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가치관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진미정·정혜은, 2010; 임선영·박주희, 2014; 김영미, 2012; 박지수·이재림, 2016).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보수적 결혼가치관은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는 결혼 인식 및 결혼의향에서 성별 차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역할가치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자녀가치관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가치관을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측정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은 미혼남녀가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동조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동조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았으며,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 필요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2009년의 결혼의향은 2005년에 비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노후에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을 가계계승 가치관, 가족우선 가치관, 부모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가치관으로 세분화하였다.

#### (1) 가계계승가치관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출산, 양육, 교육, 사회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지지 등 많은 기능들을 무리 없이 수행할 때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잘 흘러간다고 보는 관점에서 가족의 순기능이 중시되었다. 그 중 출산 및 양육은 사회화, 노동력의 재생산, 경제적 안정의 기능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부부가 되는 당사자의 개인적 의도보다는 가문의 영속적 계승을 중요시하였다(김에리, 2009). 그러나 미혼남녀의 결혼의 당위성과 결혼의향이 급격히 약화된 최근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계계승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가족우선가치관

가족우선 가치관은 가족의 이해가 가족 내 개인의 이해보다 앞서야 하는 의미로(변수정 외, 2017),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가족우선 가치관도 약화되고 있다. 가족 전체를 우선하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가족구성원 각각이 존중되면서 점점 개인주의화(김희자, 2008)되고, 가족에서의 '다원화', '탈제도화' 현상들로 나타났다(서수경, 2002). 이러한 가족 내 변화는 20, 30대가 결혼제도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성역할 가치관

성역할은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권내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태도, 행동양식, 인성 특성이다(김경옥, 2004).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선아, 2016). 성역할과 결혼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진미정·정혜은, 2010; 정선아, 2016; 최소영·장진경, 2016; 김은정, 2018)에서는 여성이 양성평등한 성역할인식을 가질수록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성역할인식이 결혼 기피나 지연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백경숙·김효숙, 2013).

#### (4) 부모역할 가치관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와 결혼비용을 고려할 때 미혼 남녀가 결혼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높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결혼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이소영, 2011),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 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임선영·박주희, 2014), 특히 결혼 초기의 주거 마련에 큰 영향을 준다(김중백, 2013).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모역할 가치관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의 지원 역할과 부담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부모역할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려는 의식과 행동이 자녀의 결혼의향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고선강과 여성연(2013)의 연구 결과 부모의 현재 경제적 지원은 미혼남녀의 미래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계소득과 부모의 주택소유, 즉 부모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자원이 영향을 주었다. 한영선(2015)은 부모의 소득과 금융자산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 부채는 영향을 미치는 않음을 보고하였다.

#### (5) 자녀 가치관

여성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대감 형성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남성보다 더 중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혼의향이 더 높을 수 있는(진미정·정혜은, 2010) 한편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도 여전히 여성이 육아의 주된 책임을 맡는 부담은 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삼식(2005)은 자녀가치관의 약화가 결혼의향과 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중백(2013)은 자녀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선강과 여성연(2013)의 연구에서는 30대 미혼남녀가 '자녀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미혼남녀의 향후 결혼의향을 파악하며,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20-30대의 청년층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또 미혼남녀의 향후 결혼에 대한 개별적 선택, 즉 결혼의향을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 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남성과 여성 각각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20,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결혼제도 인식으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남녀가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 찬성하는 것이며, 전통적 방식의 결혼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진보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분석 대상자로는 미혼자뿐 아니라 기혼자를 포함하였는데, 개인의 결혼상태와 무관하게 결혼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제도 인식에는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가족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는 반면 미혼남녀에게 결혼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결혼제도 인식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 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 1=전적 반대 2=상당히 반대 3=약간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5=약간 찬성 6=상당히 찬성 7=전적 찬성
결혼의향	‘장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1= 있다 0= 없다
<b>독립변수</b> <b>개인적 특성 :</b>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조사대상자의 만 연령
교육수준	교육년수
결혼여부	1= 기혼 0=미혼
가족관계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1=전적 불만족 4=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7= 전적 불만족
<b>경제적 자원 :</b> 근로소득유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유무 1=유 0=무
가계경제만족도	가계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1=매우 불만족 3=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5=매우 만족
<b>가치관 :</b> 가계계승 가치관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1=매우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7=매우 반대
가족우선 가치관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1=매우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7=매우 반대
부모역할 가치관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1=매우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7=매우 반대
성역할 가치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1=전적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자녀 가치관	여성이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 1=전적 찬성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반대

다는 추세(김예리, 2009)를 고려할 때 결혼의향은 결혼제도 인식과 별개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의향과 영향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경제적 자원 변수, 가치관 변수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 변수는 결혼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갖거

나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의견을 가지게 되는 시기와 상황을 반영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를, 그리고 가족관계와 가족문화를 반영하는 가족관계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경제적 자원 변수는 자신의 근로소득유무, 본인을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가계경제만족도이다. 가치관 변수는 가계계승 가치관, 가족우선 가치관, 부모 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 가치관으로 세분화하였다. 가계계승 가치관은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이 적

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가족우선 가치관은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로, 부모 역할 가치관은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성 역할 가치관은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남녀 역할구분의식으로 측정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여성이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자녀의 필요성 및 정서적 의미로 측정하였다.

###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원자료의 조사대상자 1,052명 중 20대, 30대의 남녀 292명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5.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다(표 2 참조). 결혼제도 인식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결혼제도 인식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중회귀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각 회귀모형의 VIF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혼의향의 분석대상자인 미혼남녀는 191명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남성 (N=151)	여성 (N=141)	chi square
근로소득유무	유	87(57.6)	65(46.1)	2.738
	무	64(42.4)	76(53.9)	
결혼여부	미혼	118(79.2)	73(55.7)	3.875*
	기혼	31(20.8)	58(44.3)	
결혼의향	있다	93(78.2)	52(67.5)	17.709***
	없다	26(21.8)	25(32.4)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연령(세)	28.46	5.77	29.55	6.36	-1.535
교육수준(년)	15.298	1.172	15.319	1.969	-.097
가족관계만족도	5.549	1.164	5.357	1.145	1.422
가계경제만족도	3.113	1.111	3.159	.991	-.379
가계계층가치관	4.89	1.488	5.50	1.280	-3.716***
가족우선가치관	3.87	1.444	4.16	1.366	-1.757*
성역할가치관	3.381	1.395	3.071	1.307	1.981*
부모역할가치관	3.702	1.279	3.695	1.276	.046
자녀가치관	3.298	1.379	3.149	1.362	.928
결혼제도 인식	4.900	1.320	4.249	1.358	.819

\* $p < .05$ , \*\*\* $p < .001$

## IV.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중 여성의 연령이 남성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교육수준 역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는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더 많았으며, 남성의 미혼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더 컸다. 남녀의 근로소득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가계경제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 5점 중 약 3.1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치관 변수 중 가계계승 가치관은 여성이 전통적인 가계계승에 반대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가족우선 가치관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분하는 성역할 가치관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역할 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계계승가치관, 가족우선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통적, 보수적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결혼제도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의향은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많았다.

### 2. 20, 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

#### 1) 20, 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30대의 결혼제도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 성별, 경제적 자원 중 가계경제

만족도, 가치관 요인 중 자녀가치관이 결혼제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3 참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전통적인 결혼생활 풍습과 가부장적 사고로부터의 부담을 더 인식할 수 있다(최소영·장진경, 2016)는 견해나 결혼의 필요성이 급속히 약화되어 결혼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이 더 우선시되는 변화가 여성에게 더 뚜렷하다(김혜영·선보영,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연령구범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결혼제도에 대해 개방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한편 결혼의 전제로서 취업과 소득, 집 마련 등 남성에게 더 큰 경제적 역할이 기대되는 결혼문화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계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경제만족도는 가족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주택소유, 또는 부채 등 자산상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혼인식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가계경제만족도는 객관적 부의 상태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경제적 상태로부터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리적 만족이 결혼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녀가치관, 즉 ‘여성이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반대할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결혼 후 출산을 당연한 과정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낳게 하는 결과, 즉 결혼을 현대사회의 변화와 동떨어진 전통적, 관습적 제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20, 30대 남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가계계승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부모역할 가치관이었다(표 3 참조).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였다. 남성의 성역할 가치관은 결혼제도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남성들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성역할 구분의식에 반대할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였다.

가계계승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즉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질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가족규범이 현대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가계계승규범이 결혼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의 삶과 형태의 변화는 대단히 가시적인데 비해 가족과 관련된 의식의 변화는 비가시적이거나 가족의 현실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중층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김혜영 외(2012)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계계승에 의미를 둔 보수성이 유지되는 한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결혼제도에 대한 의식은 진보적으로 변화되는 중층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역할 가치관, 즉 자녀의 결혼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모 역할에 반대할수록 결혼제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자신의 결혼과 부모 세대를 분리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 않는 의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현재 경제적 지원(임선영·박주희, 2014), 또는 부모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자원(고선강·어성연, 2013), 부모의 소득과 금융자산이 자녀의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영선(20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이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행동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식을 측정하는 차이로 보인다.

## 3) 20, 30대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경제적 자원 요인 중 가계경제만족도, 가치관 요인 중 가계계승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가치관이었다(표 3 참조). 여성의 가계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였다.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가계경제만족도가 결혼제도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혼제도 인식에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가계계승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였다. 여성들이 결혼을 가계계승을 위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 가치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제도를 시대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역할 가치관에 찬성할수록, 즉, 여성이 남편과 아내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여성이 자녀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을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는 주로 가치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가치관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이었다. 자녀가치관의 강한 영향력은 남성의 자녀가치관이 결혼제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여성의 가계계승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대조적이었다. 여성은 가계계승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을수록, 남성은 수용할수록 결혼제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또 여성이 성역할을 구분하는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남성은 수용하지 않을수록 결혼제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3〉 20, 30대의 결혼제도 인식의 영향요인

	전체(N=292)		남성(N=151)		여성(N=141)	
	B	$\beta$	B	$\beta$	B	$\beta$
<b>개인적 특성</b>						
성별	.648	.235***				
연령	-.029	-.129	-.022	-.095	-.038	-.178
교육수준	.040	.053	.130	.172 <sup>†</sup>	-.068	-.095
결혼여부	.307	.104	.043	.013	.241	.088
가족관계만족도	.042	.036	.051	.045	.032	.027
<b>경제적 자원</b>						
근로소득유무	.056	.020	.127	.047	-.016	-.006
가계경제만족도	.263	.201***	.111	.093	.243	.174 <sup>†</sup>
<b>가치관</b>						
가계계승가치관	.004	.004	-.195	-.219 <sup>†</sup>	.243	.225 <sup>†</sup>
가족우선가치관	-.028	-.028	-.103	-.111	.071	.071
성역할가치관	-.018	-.018	-.298	-.303**	.231	.223 <sup>†</sup>
부모역할가치관	.040	.038	.176	.170 <sup>†</sup>	-.139	-.134
자녀가치관	.199	.195**	.073	.074	.375	.372***
상수	2,658		4,135		2,496	
R <sup>2</sup> (Adj-R <sup>2</sup> )	.155(.116)		.195(.130)		.274(.205)	
F 값	4.018***		3.018**		3.955***	

<sup>†</sup>p < .05, \*\*p < .01, \*\*\*p < .001

### 3. 20,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조사대상자 중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미혼남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을수록, 즉 자녀 필요성에 반대할수록,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미혼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자가 결혼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20, 30대 미혼남녀의 연령이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김정석(2006), 고선강과 여성연(2013), 김중백(2013)의 연구에서 미

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25세부터 34세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 연령이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1.56배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며, 한영선(2015)은 미혼여성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영선(2015)이 비교적 30대 후반부터 40대로 높은 연령 집단에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해석이나 김중백(2013)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차이는 20-24세 집단에 비해 30-34세의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 결과를 통해 연

〈표 4〉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의 결정요인(N= 191)

	B	S.E
<b>개인적 특성</b>		
성별	.574	.407
연령	-.130	.046 <sup>***</sup>
교육수준	.235	.128 <sup>*</sup>
가족관계만족도	.069	.160
<b>경제적 자원</b>		
근로소득유무	.974	.479 <sup>*</sup>
가계경제만족도	.346	.195 <sup>+</sup>
<b>가치관</b>		
가계계승가치관	.020	.200
가족우선가치관	-.185	.181
성역할가치관	-.278	.197
부모역할가치관	.123	.163
자녀가치관	.515	.208 <sup>*</sup>
상수	-1.687	2.695
-2 Log likelihood		
	173.224 <sup>a</sup>	
Nagelkerke R <sup>2</sup>		
	.257	
x <sup>2</sup>		
	35.426 <sup>***</sup>	

<sup>a</sup>p<.05, <sup>+</sup>p<.01, <sup>\*\*</sup>p<.001, <sup>\*\*\*</sup>p<.01

령이 결혼의향에 작용하는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성별과 관련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차이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을 보인 것은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 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고, 한영선(2015)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다. 높은 인적자본은 경제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결혼을 선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자가 없는 미혼자에 비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능력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 변수가 모두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을 표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선택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별개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분석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이 미혼남녀에게 자녀가치관과 결혼의향이 다른 각도에서 인식된다고 해석한 바와 같이 자녀 출산의 당위성이나 의미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이유와 맥락에서 인식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조건, 가치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 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의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이중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이 결혼제도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으로부터 근대적인 인식에 이르는 스펙트럼 내에서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남성이 전통적 결혼제도에 더 부담을 느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치관 요인 중 성역할 가치관과 가계계승 가치관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사회적 제도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관련된 가치관이 매우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가계계승 가치관을 보인 남성이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가계계승 가치관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영향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 즉 공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인식으로서 전통적 규범에서 어느 정도 변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는 전통적인 가계계승의 가치를 고수하는 남성들이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화된 인식을 보이는 현상이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치관은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던 반면 남성의 결혼제도 인식과는 무관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역할이 공평하게 분담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는 모성으로서 더 크게 작용하고 부담으로 인지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부모역할 가치관은 남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여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에 대해 남성이 가장으로서 여성보다 더 책임과 역할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유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다른 가치를 형성시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결혼제도 인식에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셋째, 미혼남녀의 향후 결혼의향에는 개인적 특성, 경제적 자원, 가치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 중 연령과 교육수준, 경제적 자원인 근로소득유무와 가계경제만족도, 자녀가치관이 결혼의향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과 가계경제만족도가 높고 근로소득이 있는 남녀가 결혼

을 선택할 의향을 보인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 선택에 실질적인 조건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라면 가계경제만족도는 가족의 부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미혼남녀의 결혼 결정에 선행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경제적 자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준비가 미흡하거나 중압감을 느낀다면 결혼 결정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부정적 작용이 우려된다.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가치관, 즉 자녀의 필요성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미혼남녀에게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됨이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자녀출산은 결혼과 또 다른 맥락에서 결정해야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에게 부여했던 정서적 가치가 변화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 30대 남녀의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남성과 여성의 결혼제도 인식의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성별이 결혼인식에서 갖는 함의를 밝힌 의의가 있다. 또 미혼남녀가 결혼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조성된 인식을 내재화하는 것과 별개로 결혼의향을 분석하여 결혼에 대한 개인화된 선택에 접근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 결과 여러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결혼인식과 가치관, 결혼의향의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연령과 세대를 제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20, 30대로 한정시킨 결과 현재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대상자가 많았고 이로 인해 취업유무, 근로소득액 등의 변수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청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적정 소득액, 소득과 자산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면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및 소득과 관련된 주관적 경제적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료에서 결혼 당시 또는 미래에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모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편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에 가치관 요인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이 예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가계계승 가치관은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남성이 가계계승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반대로 여성이 수용하지 않을수록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이 전통적인 가계계승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즉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보지 않는 인식이 더 타당하고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석 결과 반대의 현상이 도출되었다. 또 남성의 전통적 가계계승 가치관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추론되는 자녀가치관은 남성의 결혼제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의 측정도구가 여성의 출산 양육 역할 위주로 작성된 결과 여성은 이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자신의 역할로 경험하거나 투사되지 않는 문제가 다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의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경제학 분야에서 제시된 영향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시장노동 진출, 결혼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연구 관심이 주로 교육수준, 취업, 소득 등 경제적 변수에 집중되어온 결과 상대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가족문화, 일과 가족에 대한 상대적 가치 의식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생애설계의 틀에서 개인의 시간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일과 결혼 생활에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자원관리 및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결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인적 자원, 관계자원 등의 비경제적 자원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성별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독립적일 뿐 아니라 교육수준, 취업, 소득 등과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볼 때 성과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지위, 소득 등 관련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결혼에 대한 가치, 태도, 인식 및 결혼의향, 결혼시기 등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에 대해 연도 간 비교, 시계열적 분석 등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고선강·여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2) 김경신(2010). 가족학 실천영역 연구의 발전과정과 그 방향 탐색. 생활과학연구, 20, 114-127.
- 3) 김경옥(2004).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K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영미(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211-241.
- 5) 김예리(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은정(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4), 1291-1306.
- 7)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8) 김중백(2013).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9)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25.
- 10) 김혜영·김상돈·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

- 구원 연구보고서.
- 11) 김희자(2008).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 사회*, 78, 194-222.
  - 12)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 33-62.
  - 13) 박주희(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및 수도권 결혼적령기 취업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 14) 박지수·이재림(2016).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62-263.
  - 15) 변수정·박종서·오신휘·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16) 백경숙·김효숙(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3), 205-233.
  - 17) 서수경(2002).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9-37.
  - 18) 서지희(2009). 미혼취업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오지혜·임정재(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 20) 유흥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21) 윤자영(2012).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여성학논집*, 29(1), 217-246.
  - 22) 이삼식(2005). 저출산시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102, 7-15.
  - 23)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38.
  - 24) 이소영(2011). 세대 간 자산이전 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05-216.
  - 25)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5(1), 131-156.
  - 26) 이윤주(2017). 연령, 시기, 코호트로 본 1998-2014년까지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만혼화 및 저출산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7-62.
  - 27) 임선영·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28)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29) 정선아(2016). 성인 미혼남녀의 성역할태도와 부모의 부부관계 지각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결혼의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조지영(2011). 저출산 사회 미혼자의 결혼관·자녀관 경향과 결혼-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32) 진미정·한준·노신애(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 33) 채민진(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인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최새은(2003). 30대 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최소영·장진경(2016).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인식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54(2), 181-195.
- 36)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공동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9-55.
- 37) 하보란(2012).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한겨레신문(2019. 07. 11) “결혼해야” 여성의 43.5% 불과…미혼 여성가구주 2000년보다 2.6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9984.html#csidxb507b217f3deb04ae0d70bc4801c6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9984.html#csidxb507b217f3deb04ae0d70bc4801c6f4)
- 39) 한영선(2015). 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5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6-215.
- 40) 홍은영(2011).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1) Becker, G.(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42) Oppenheimer, V.(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s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 43) Sassler, S. and Schoen, R. (199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147-159.
- 44) Shostak A. (1987), “Singlehood” in M. Sussman & S.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355-368) New York: Plenum,

- 투 고 일 : 2019년 12월 16일
- 심 사 일 : 2020년 01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1월 29일